

젖산산증으로 진단된 재발성 미만성 B세포 림프종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강지, 이은아, 김정엽, 전은실, 표희정, 권영주

A Case of Recurrent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iagnosed with Severe Lactic Acidosis

Gang Jee Ko, Eun Ah Lee, Jung Yub Kim, Un Sil Jeon, Heui Jung Pyo, Young Joo Kw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서론: 젖산 산증은 가장 흔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한 젖산 생성의 증가 및 조직 허혈에 동반된 젖산의 소모감소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악성 종양환자에서 젖산 산증은 흔하지 않은 합병증으로 주로 혈액암 환자에서 암세포의 젖산 생산 증가 및 악성 간침윤에 의해 간내 젖산 소모의 감소와 더불어 발생하여, 조직내 저산소증이 없이 동맥혈 수소이온농도 7.35 미만 및 젖산농도 5 mEq/L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으며,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본 증례에서는 B세포 림프종 환자가 항암요법으로 완전관해 후 다른 임상양상의 변화 없이 젖산 산증만으로 재발이 발견되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45세 남자가 내원 8개월 전 간비대와 림프절 종대로 미만성 B세포 림프종 진단 하에 6개월 간 8차례 항암요법 후 완전 관해 판정받고 추적관찰 중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약물 복용력은 없었고 내원 시 생체징후는 혈압 140/80 mmHg, 맥박 수 분당 106회, 호흡 후 분당 22회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9,800/ μ L, 혈색소 16.5 g/dL, 혈소판 112,000/ μ L, 혈중 요소질소 29.5 mg/dL, 크레아티닌 0.92 mg/dL, 나트륨 136 mmol/L, 포타슘 4.6 mmol/L, 염소 104 mmol/L 였고, 동맥혈 가스검사는 pH 6.85, 이산화탄소 분압 9 mmHg, 산소분압 126 mmHg 및 중탄산염 농도 3 mmol/L의 고음이온차 대사성 산증을 보였으며, 젖산 농도는 12.3 mmol/L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이전의 간 침윤 및 복부 림프절 종대와 같은 재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대사성 산증 및 젖산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는 점에서 골수 검사를 시행하였고 B세포 림프종의 재발이 진단되어 2단계 항암치료 후 산증은 교정되었다.

결론: 악성 종양 환자에서 젖산 산증에 의한 심한 대사성 산증이 관찰될 수 있으며, 조직 저산소증 없이 젖산 산증에 의한 대사성 산증이 지속될 경우 재발 및 악성종양의 진행을 의심하여야 하겠고, 원인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할 수 있었다.

Key Words: 젖산 산증, 재발성 림프종, 고음이온차 산증

Lactic acidosis, Recurrent B cell lymphoma, High AG acidosis